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외식물가 ‘깡충’

호남통계청, 4월 물가동향

광주 1.9% 전남 2.2% 각각 올라 농축수산물·식품 물가 ‘고공행진’ 이상기후 등 장바구니 부담 지속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9%,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신선식품, 외식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의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6(2020년=100)로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9% 각각 상승했다. 광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2%대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지난 3월 들어 전월 상승률(2.1%) 대비 0.2%p 소폭 하락한 1.9%로 돌아선 이후 1%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등에서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는 119.49로 1년 전과 비교해 1.8% 상승했으나 특히 식품 지수가 126.67로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한 것이다. 식품이외는 115.55로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다.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도 138.82로 1년 전과 비교해 0.3% 상

승했다.

특히 신선어개(118.35)는 전월과 비교해 1.2%, 1년 전과 비교하면 9.2% 각각 상승했으며 신선채소(130.33)는 전월대비 6.0%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9% 상승했다. 신선과실(162.69)은 전월대비 3.8%,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3% 각각 하락하며 세 가지 항목 중 유일하게 하락했지만, 지난해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폭등한 과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향후 기상여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41.0%), 오징어(30.7%), 고등어(14.0%) 등 농축수산물부터 생선회 외식(11.2%), 커피 외식(6.1%), 빵(5.6%) 등 외식 물가, 보험서

비스료(16.3%) 등 서비스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고루 상승했다.

전남지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1로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했다. 전남은 올 들어 전년동월대비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식품은 3.2% 식품이외는 1.6%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에서는 특히 신선어개(119.51)가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대비 10.1% 각각 상승하며 물가를 견인했다. 신선채소(122.08)는 전월대비 6.5%,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하락, 신선과실(156.87)은 전월대비 2.8%,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하락했다. 전체 신선

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7% 하락,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갈치(22.3%), 오징어(17.7%), 보험서비스료(16.3%), 시내버스료(13.1%), 자동차용 LPG(9.5%), 구내식당식사비(7.6%)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수급·가격 변동 및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경총, 노동 현안 기업 대응 맞춤형 교육

고용노동부 추진 방향 등 설명

광주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년 근로감독 및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노사 간의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2025년 근로감독 방향 및 최근 통상임금 이슈를 전달하고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류관훈 광주고용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1강에서 2025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추진방향 주제로,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방향과 주요 점검사항 안내 등을 강의하고, 2강에서는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주제로 정기상영금, 성과급, 기타 제수당 등 보상규정 정비, 통상임금 입법화 동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을 알려준다.

이번 교육 참가신청은 12일까지이며 교육 참가 희망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이 최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위한 금융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외국인 금융특강…지역사회 정착 지원”

광주 거주 외국인 50여명 참여 “금융생활 자립 기반 마련 도움”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위한 금융특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 금융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신경구)’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은 은행 계좌 개설 절차, 합리적인 카드 사용 방법, 신용점수 관리 요

령,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 고훈 센터장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지식을 함양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는 광주·전남 최초의 외국인 전담 점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근로 형태에 맞춰 일요일에도 점포를 운영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가 후원한 ‘2025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열띤 관심 속에 마무리 됐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후원 ‘광주학생 미술대전’ 성료

시립미술관·신세계갤러리 전시

광주신세계가 후원한 ‘2025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열띤 관심 속에 마무리 됐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광주신세계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광주학생 미술대전 시상식은 지난 3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 김영희 (사)광주미술관회 이사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광주학생 미술대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시작했다. 광주

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행’을 주제로 그린 작품을 이메일로 받았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사생대회를 실시했다. 지난 4월 19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현장 사생대회에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연필과, 색연필, 크레파스를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대회에 대한 공정성을 높였다.

수상작 60점은 광주시립미술관(5월 1~11일)과 광주신세계갤러리(5월 15~27일)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내 미술 꿈나무들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광주학생 미술대전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 열린 이번 대회에는 지역 학생 수백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나다운 기자

중소조선연구원·현대미포 “해양모빌리티 인재 양성”

친환경 선박 산업전환 업무협약

중소조선연구원과 HD현대미포가 해양모빌리티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조선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울산 HD현대미포 본사에서 서용석 원장과 HD현대미포 김형관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분야 산업전환 인재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탄소

연료 및 전기추진 선박 기술 교육 강화 △‘친환경 선박 아카데미’ 커리큘럼 공동 개발 △산업전환 직무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에 협력한다.

서용석 연구원장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은 조선업계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형선박 분야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닌 HD현대미포와 함께 미래 해양모빌리티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관 HD현대미포 사장은 “이번 협약

을 계기로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기술역량 강화에 힘쓰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키기 위한 기술 고도화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 직후 열린 특별 강연에서는 연구원장 서용석 원장이 ‘조선업 스마트 기술 구축’을 주제로 HD현대미포 임직원 200여 명에게 최신 트렌드와 적용 전략을 공유했다.

최권범 기자